

“곡성을 미래 농산업·치유·레저산업 중심지로”

도, 정책비전투어서 4대 비전 제시
관광 활성화·생활인구 500만 시대
족자 건의 도입 진정성 있는 소통
김지사 “곡성군 발전 적극 뒷받침”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곡성을 미래 농산업과 치유·레저산업 핵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책비전투어를 주제로 “곡성은 고부가가치 농업 기반을 보유한 데다, 대한민국 대표 장수 지역으로 풍부한 치유 자원과 심진강·보성강 등 생태·레저 환경까지 두루 갖춘 최적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책비전투어에는 김영록 지사와 조상래 곡성군수,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 진호건 전남도 의원,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전남의 기회는 곡성의 기회이고, 곡성의 변명은 전남의 변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김영록 지사의 도정 철학을 본받아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위해 전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곡성은 토란, 멜론,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곡성군청에서 열린 ‘곡성군 정책비전투어’ 행사에 참석해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 의견과 제안에 답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백세미 등 다양한 우수 농산물을 육성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에도 힘쓰고 있다. 연간 60만여명이 찾는 장미축제와 기차마을은 전남, 나아가 전국의 자랑”이라며 “전남도가 앞으로 곡성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철 전남연구원 농수해양연구실장은 ‘곡성 미래 전략’으로 ▲대한민국 가족관광 1번지 ▲

청년이 머무는 생명산업의 땅 곡성 ▲생활인구 500만명 시대 달성 ▲지속가능한 지역 미래산업 육성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곡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동현 농업회사법인 미실란 대표는 “100만명 이상 가톨릭 청년이 모이는 2027 서울세계청년

대회는 교황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라며 정책박해 진원지이자 천주교 성지인 곡성이 순례 코스에 포함되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장미농가를 운영 중인 서용호씨는 “15회를 맞은 곡성세계장미축제를 계기로 장미를 전남 대표 화훼산업으로 육성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제품 육성과 생산 확대를 위한 육묘장 추

가 조성하고 함께, 장미잼·차·화장품 등 6차 산업화 기반도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홍균 수상레포츠관광단지 추진위원은 “심진강 자원을 활용한 복합 수상레포츠시설을 도입해 곡성을 호남의 대표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준성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자는 곡성군 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단지가 청년 농업인의 정착 거점이 되도록 단지 추가 조성, 거주시설 확보, 교육·마케팅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군민들은 신재생 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단지 조성,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2031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곡성 1827 순례길(가칭) 개발 등 곡성의 특색을 살린 지역 사업에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2027년은 정해박해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광주대교구와 협의해 곡성이 서울세계청년대회 성지 순례 코스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곡성이 전국 청년 농업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스마트팜 추가 사업 신청 시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곡성 정책비전투어에서는 도민 제안사항을 사전 접수하는 족자 건의 방식의 ‘도민의 현장 소리’를 도입, 김지사가 현장에서 접수된 족자 건의에 대해 직접 응답하며 도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영사원 기자

노란산딸기 ‘골드문’ 상품화 속도 낸다

전남산림청 개발 상품종 재배심사 순조
기술이전 통해 재배농가 소득창출 기대



전남도산림연구원은 8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2023년 품종보호 출원한 산딸기 ‘골드문(Gold Moon)’이 산림연구원 시험포에서 노랑게 열리며 재배 심사가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딸기 ‘골드문’은 전남지역 주요 산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산림자원탐사단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산딸기 가운데 특이 개체를 선발해 육종한 상품종이다. 보통 산딸기 열매와 달리 골드문은 줄기가 녹색이며 열매가 노랑게 열려 다른 품종과 쉽게 구별된다. 〈사진〉

산딸기 골드문은 2023-32호로 2023년 11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 출원돼 2년차 품종 심사 중이다. 품종 특성이 잘 드러나 재배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산딸기 판매가 한창인 요즘 플레인요거트에 빨간색과 노란색의 산딸기를 함께 올려놓고 먹

으면 달콤함과 함께 색채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다. 산딸기 케이크 등 제과 제빵류에도 활용할 수 있어 산딸기 재배 농가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상품종 보호출원에 대한 재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개체 수를 충분히 확보,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 보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순호 생태연구팀장은 “산딸기 ‘골드문’의 노란색이 컬러 마케팅에 활용된다면 산딸기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재배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며 “기술이전을 위한 충분한 개체 수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사원 기자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1만3천㎡ 규모 5-6세기 지배층 무덤군
독창적 마한문화·동아시아 교류사 규명

영암 시종면 옥아리와 내동리의 ‘영암 시종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옥아리 장동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으로 구성된 영암 시종 고분군은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됐다. 전체 지정 면적은 8필지, 1만3천6㎡ 규모다.

영암 시종 고분군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의 조성과정과 축조기술 등을 통해 보여줘 역사·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산강 유역 고총고분의 등장은 5세기 중엽 옥아리 장동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어진다. 마한 고유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나 거대한 방대형 분구의 석곽·석실묘로 변화상을 보여준다. 이는 대형 분구 축조술의 발전으로 당대 토목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출토 유물인 금동관 세움장식,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했던 양식의 토기, 현저한 외래계 유

물, 분분 외곽 장식인 원통형 토기와 동물형상 토제품 등을 통해 당시 마한 세력이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강효석 문화유산국장은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전통적 요소와 백제·가야·중국·왜의 요소가 융합된 독특한 고분문화로 고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라며 “전남에 산재한 마한 유산을 지속 발굴·연구해 사적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마한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영사원 기자

김현성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자 ‘건강상 이유’ 사퇴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됐던 김현성(사진) 전 광주경제진흥상생발전재단 대표 이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이사는 문화경

제부시장 내정에 대해 사의를 밝혔다. 내정된 지 닷새 만이다. 김 전 대표이사는 광주경제진흥상생발전재단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이사가 건강검



진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이상이 발견됐다면서 부득이 사퇴했다”며 “지역 현안을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조속히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회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